권 두 언

철학하는 대학, 철학하는 사람

창조적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문화를 끊임없이 재창출하고 주도하는 사람, 바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와 지력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그 창조력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사회발전의 자원이자,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즈음 한국 대학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 개혁의 지향점도 이러한 인재교육에 그 틀을 두고 있다. 여기에 교육시장 개방화를 앞두고 선진외국의 교육산업 공세에 더욱 그 입지가 불안해진 한국 대학들의 위기의식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큰 동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대학들은 초조하다. 그 초조감으로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개혁 방향을 구상할 겨를도 없이 정형화된 대학 발전 기준에 발맞추어 더욱 획일화되고 경직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방만한 투자와 경영으로 인해 연이어 발표되는 대학의 낭패와 부도 소식,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대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사고'의 창고가 되어야 한다. 즉,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그 사회를 평가, 통제하고 창출할 수 있는 개인들을 교육할 수도 있어야만 한다.

숙명여대 총장 이 경 숙

진정한 대학교육의 개혁은 물적·수량적 경쟁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의 정신과 철학에 있다.

창조적 인간과 자기 완성을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다음 시대에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목표에 충실하려면, 오늘의 한국 대학이 지향해야 할 개혁방향은 바로 대학 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하겠다. 즉, 대학 정신은 시계 바늘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진리와 정의에 대한 탐구의 자유와 여유 속에서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대학 주체들의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대학이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고 자기 내부에서 완성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21세기를 감당하는 교육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철학하는 대학이란 바로 이러한 대학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 무한한 지적 에너지원의 창출이 가능한 철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학이 설 때,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가능성에 도전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람, 즉 철학하는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